스포츠동아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sportsdonga.com 33판

이영표 사장·박지성 단장
K리그, 이런날 언제 올까
▶8면

야구판의 감초 '가성비 갑' 복덩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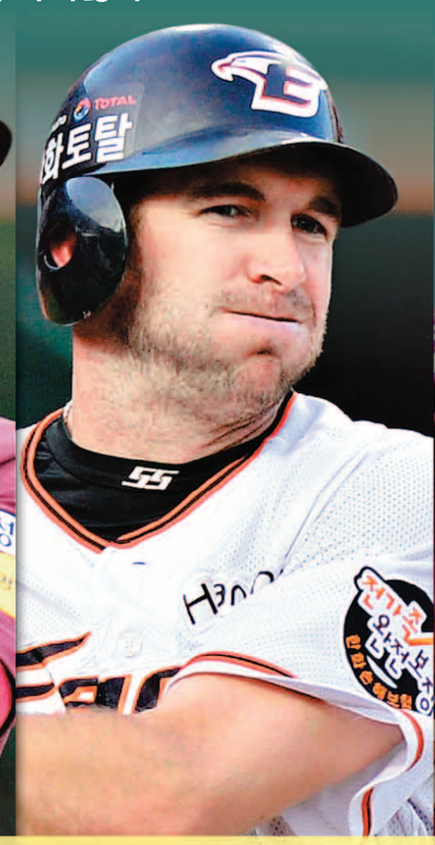
〈甲〉

최저 연봉·최고 활약…성적은 연봉순이 아니잖아요

강백호 (KT)
2018년 연봉 ▶ 2700만원
주요성적 ▶ 89경기 타율 0.289, 18홈런, 52타점

양창섭 (삼성)
2018년 연봉 ▶ 2700만원
주요성적 ▶ 9경기 44.2이닝 4승2패, 평균자책점 4.23

김규민 (넥센)
2018년 연봉 ▶ 2900만원
주요성적 ▶ 68경기 타율 0.300, 3홈런, 33타점



제러드 호잉 (한화)
2018년 연봉 ▶ 70만 달러(약 8억원)
주요성적 ▶ 94경기 타율 0.327, 22홈런, 82타점

※ 성적은 24일 기준

제이크 브리검 (넥센)
2018년 연봉 ▶ 65만 달러(약 7억4000만원)
주요성적 ▶ 20경기 128.2이닝 5승5패, 평균자책점 3.85

신인 30홈런에 도전하는 KT 강백호
삼성 토종 선발 양창섭도 최저 연봉
넥센 6년차 김규민 3할타 무명반란
공수서 한화 돌풍 이끄는 효자 호잉
넥센 선발 브리검도 5승 효율성 굿

현명한 소비의 원칙 중 하나는 '가성비'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 값이 비싸다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프로야구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수의 연봉은 그간 보여준 활약에 앞으로의 기대치를 더해 책정된다. 하지만 기대치가 현실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고액 연봉에도 부진한 '먹튀'가 있는 반면, 기대가 낮았던 저연봉 선수들의 반전 활약도 흔하다. 성적은 연봉순이 아니다.

●'연봉 대폭 인상 찜!' 가성비 만점 활약

KBO리그 최저 연봉은 2700만원이다. 아무리 입단 계약금을 많이 받은 특급 신인이라도 데뷔 첫 해에는 최저 연봉을 받는다. 1996년 박재홍의 신인 역대 최다 홈런(30개)에 도전 중인 강백호(KT)와 어느덧 팀 내 토종 에이스로 떠오른 양창섭(삼성)은 최저 연봉을 비웃는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동시에 쏟아져 나온 '베이징 키즈'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쌍두마차다. 24일 강백호는 시즌 18호 홈런을, 양창섭은 시즌 4승째를 따냈다. 이들은 현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내년 연봉 대폭 인상은 따 놓은 당상이다.

긴 무명의 터널을 벗어나 빛을 보기 시작한 이들도 있다. 입단 6년차 김규민(넥센)은 그간 1군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그의 올해 연봉은 최저를 살짝 웃도는 2900만원. 하지만 타율 3할을 기록하고 있다. 서건창과 김하성, 이정후, 박병호 등 주축 타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빠졌던 상황에서 버텨낸 공로는 눈에 보이는 기록 이상의 가치다. 강경학(한화) 역시 연봉은 5800만원에 불과하지만 0.340을 상회하는 타율에 수비에서 안정감까지 보여주며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호잉과 브리검이 복덩이라고 불리는 이유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이는 단연 제러드 호잉(한화)이다. 한화는 올 시즌에 앞서 리빌딩 기조를 천명하며 외국인 몸값 줄이기에 나섰다. 호잉에게는 계약금과 연봉 합쳐 70만 달러를 지급했다. 지난해 윌린 로사리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자, 10개 구단 외국인 타자 가운데 마이클 초이스(넥센·60만 달러) 다음으로 적었다. 하지만 호잉은 올 시즌 94경기에서 타율 0.327, 22홈런, 82타점을 기록하며 한화의 비상을 이끌고 있다.

'2년차' 제이크 브리검(넥센) 역시 알짜배기다. 지난해 대체 외국인 선수로 넥센에 합류한 그는 올 시즌에 앞서 총액 65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외국인 투수 20명 중 18위의 저연봉이다. 외국인 투수 몸값 1위 헥터 노에시(KIA·200만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20경기에서 완투승 한 차례 포함 5승5패, 평균자책점 3.85로 활약 중이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3·4·6면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KBO리그 경기결과 ▶24일 잠실 삼성 11 : 1 LG 고척 KT 9 : 6 넥센 인천 두산 1 : 3 SK 대전 KIA 0 : 5 한화 사직 NC 3 〈연장12회〉 2 롯데

CJ CHEILJEDANG

하루 1포로
효소에
홍삼까지!

홍삼 함량을 3.3배 높여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 액티브 Active

1 자신있는 효소 함량!
HOPE 발효효소 액티브는 효소를 보충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잘 분해되고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1포에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가 각각 4,500(U) 이상씩 들어있어, 하루 1포로 무 약 3/4개, 키위 약 3개 만큼의 효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HOPE 발효효소 액티브로 일상의 건강을 챙기세요!
(키위 76 g / 무 400 g 기준, 자체실험결과)

2 1포에 진세노사이드 5 mg 함유
활기찬 일상을 위해 홍삼까지 더한 HOPE 발효효소 액티브. 1포에 홍삼 고유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 Rb1 + Rg3)를 5 mg 담았습니다. 기존보다 홍삼 함량이 3.3배 증가되어 더욱 더 좋아진 HOPE 발효효소 액티브! 하루 1포로 효소와 홍삼의 건강을 함께 누리세요.

3 6가지 건강 곡물의 발효 영양!
6가지 건강곡물(밀, 퀴노아, 현미, 귀리, 렌틸콩, 찰보리)을 발효하여, 효소뿐 아니라 발효곡물의 영양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4 믿을 수 있는 CJ제일제당의 기술력
HOPE 발효효소 액티브는 CJ제일제당에서 수년 여의 연구를 통해 최적의 발효균주와 발효조건을 찾아냄으로써 탄생된 제품입니다.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 CJ 블로썸 파크 (경기도 수원시 광교 소재)

홍삼 함량 UP! 구매 혜택도 UP!
2+2 2세트 구입 시 2세트 더!

더 좋아진 HOPE발효효소 액티브 지금 바로 만나 보세요
*본 제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722-9988